전남·경북교육청, 지역 중심 글로컬 미래교육 실현 도모

올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교육박람회 관련 사업 공유
교육 현안 상호 협력방안 모색

전남-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이 22일 히든베이호텔 여수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을 마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1일 부터 22일 까지 히든베이호텔 여수에서 '2024년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자리를 갖고, 지역 중심의 글로컬 미래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는 오는 5월 여수에서 펼쳐지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사업을 공유하고, 교육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전남·경북 교육청 국장, 각 실·과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 양 교육청 패널 토의 ▲ 특색 사업 발표 ▲ 본청 연계 부서 간 업무 협의 ▲ 국제교육원·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두 교육청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글로컬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전남교육청은 올 새 학기부터 도내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 중인 '전남형 늘봄학교'의 운영 현황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방안 등을 발표하며, 선진적인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경북교육청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번기·어번기형, 유·초이음형, 지역연계형 등 경북형 늘봄학교 유형을 소개하고, 유관기관·마을과 협력한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두 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면서, 지역의 인재들이 돌봄·진학·취업까지 지역에서 정주해 살아갈 수 있는 교육생태계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교육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며"두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도"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그 성과가 향후 지속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과 협력·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전남과 경북이 돌아가며 차례로 개최하며 교육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부산 기장군, KBO 야구센터 가동

국내 최고 수준 야구 인프라 통해
야구테마클러스터 조성 목표
세계·전국 유소년야구대회 등 개최

기장야구테마파크 전경. /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은 KBO야구센터로 지정된 기장야구테마파크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을 통해 한국야구 발전의 요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장야구테마파크는 국내 최대 야구테마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기장군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다. 일광유원지 내 정규 야구장 4면, 리틀야구장 1면, 소프트볼구장 1면이 조성돼 프로·학생·사회인 등 각종 야구 경기와 전지훈련장으로 상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야구 인프라와 함께 U-18세계청소년야구대회,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등 세계 및 전국 규모의 야구대회가 개최되면서 전국 야구인들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다.

기장야구테마파크는 2022년 12월 국내 최고 수준의 야구 인프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KBO야구센터로 공식 선정됐으며, 2023년 2월 '기장-KBO 야구센터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KBO의 공식 대회와 행사, 훈련 등을 기장군에 집중적으로 유치하게 됐다.

기장군은 나아가 기장야구테마파크를 다양한 지역 관광과 연계한 랜드마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각종 대규모 대회와 행사 유치로 선수 및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조선해양기자재社 해외개척 지원

해외기업 벤더등록 지원사업 성과

경상남도가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오일메이저 등 해외기업 벤더등록 지원사업'이 벤더등록과 수주계약 등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벤더등록은 발주처인 오일메이저 등 해외기업의 거래대상 업체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급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조선해양 기자재업체의 수출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등록 지원사업은 도내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를 발주처인 오일 메이저와 해외 우수기업의 협력업체로 벤더등록 하기 위해 ▲국제 공급망 체인 구축 ▲계약서 검토 컨설팅 ▲서비스 자격취득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해, 최근 3년간 12억 원을 지원해 총 35개사가 벤더등록을 하고 355억 원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에는 4억 원을 지원해 10개 기업이 아람코(사우디아라비아), PETRONAS(말레이시아) 등 해외 오일메이저 기업의 벤더등록에 성공했고, 173억 원 규모의 매출달성과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참여 실적을 확보했다.

경남도는 올해도 4억 원을 투입해 10개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내 소재지를 둔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4월 중 사업 소개와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이철우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해달라"

〈경북지사〉

선발 비율, 대구·경북 각 50% 배정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22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에 따라 지역인재 전형을 80% 이상 확대하고 대구와 경북 각 50%로 배정해 달라고 대구·경북 5개 의과대학(동국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에 요청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이번 요청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6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했으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전형은 40% 이상으로 하되, 시도 비율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도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경북도는 특히 경북 유일의 지역의과대학인 동국대 WISE 캠퍼스에 ▲WISE캠퍼스 및 경주병원에서 모든 학사과정(예과 및 본과 실습 포함) 개설·운영 ▲경주병원의 전공의 수련과정 대폭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추가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경북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대구와 경북 동등하게 맞춰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해남군, '달마고도 힐링축제' 성료

힐링 걷기축제로 마련

한반도 첫 봄의 시작, 땅끝 해남의 명품 인생길 달마고도에 봄길이 열렸다.

해남군은 지난 23일 송지면 미황사와 달마고도 일원에서 '2024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달마고도 힐링축제는 '자연 그대로의 힐링, 달마고도'을 주제로 봄의 숲길에서 쉼과 여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걷기 축제로 마련됐다.

축제는 둘레길 걷기를 위한 여행객이 아침 일찍부터 몰린 가운데 축하공연을 비롯한 개막식과 함께 소원 나무 심기, 숲속 버스킹 등이 걷기길 곳곳에 마련돼 전국에서 찾아온 트레킹족들을 반겼다.

달마고도 힐링축제

또한 노르딕워킹, 다도, 명상, 아로마 마사지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해남특산물을 판매하는 달마장터와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세계 물의 날' AI 캠페인 도입

경북도가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에 생성형 AI(인공지능)로 'SAVE WATER, SAVE LIFE' 캠페인 디자인을 만들고 이날부터 캠페인에 들어갔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도민들에게 물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캠페인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AI와 인간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물 절약을 위한 즉각적인 실천과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 경북도는 25일까지 도청 화장실 세면대에 이 이미지를 설치한다.

/경북=장영우 기자

부산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대상지 선정

부산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부산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를 개최해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신규 대상지 12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들락날락은 15분 생활권 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도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아트 등)와 각종 프로그램을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달 기준 47곳이 개관 완료했고, 37곳이 공사 중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창원특례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창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로 창원특례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하고 종합평가가 시작된 이후 도내 유일 3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기관노력도 ▲제도활용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30%인 72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포항시

스마트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설치

포항시는 추위와 더위를 막아 줄 스마트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총 9개소를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스마트 미세먼지 안심승강장은 지난 2019년부터 개소당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까지 총 24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환호해맞이그린빌 아파트, 선린병원, 육거리, 유성여고 4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철강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대중교통 주요 거점 5개소를 선정해 설치 예정이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